

‘캐스팅 보트’ 1190만 히스패닉 청년을 잡아라

미 대선 유권자 분석 결과

라티노 11.4·아시아계 4.2%

밀레니얼 세대 투표율이 관건

‘멕시코 비하’ 트럼프 타도 운동도

오는 11월 열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고학력의 젊은 히스패닉(스페인어를 쓰는 인종) 유권자의 선택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연구 기관인 퓨리서치 센터가 19일(현지시각)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올해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전체 히스패닉 유권자 2730만 명 중 44%에 해당하는 1190만 명이 1982년 이후 출생한 이들을 통칭하는 밀레니얼 세대에 속했다.

미국 인구통계국의 자료를 인용한 퓨리서치 센터는 인종별 유권자 세대층을 살펴볼 때 히스패닉 밀레니얼 세대의 비율이 전 인종 중에서도 가장 높았다고 덧붙였다. 불법 또는 합법으로 미국에 건너와 미국 국적을 취득한 히스패닉 중 11월 투표 연령인 만 18세가 되는 인구는 320만 명으로 추산된다.

미국에서 나고 자라 고등 교육을 받은 투표 가능 인기도 역대 최고치에 이를 것이라고 퓨리서치 센터는 전망했다.

2035년이면 미국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히스패닉 인구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상황에서 히스패닉 유권자의 수도 8년 전보다 40%나 급증했다.

30년 전인 1986년만 해도 미국 유권자의 82%를 차지한 백인은 2014년 72%로



격전지 아이오와주에서

미국 민주당 대선 레이스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전국 지지율은 앞서지만, 공화당 유력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와의 본선 대결에서는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의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현지시각) 나왔다. 사진은 클린턴(가운데 오른쪽) 의원이 18일 아이오와주 툼레도에서 지지자들과 사진 촬영하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대선 레이스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전국 지지율은 앞서지만, 공화당 유력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와의 본선 대결에서는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의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현지시각) 나왔다. 사진은 클린턴(가운데 오른쪽) 의원이 18일 아이오와주 툼레도에서 지지자들과 사진 촬영하는 모습. /연합뉴스

줄었다. 같은 기간 5%에 불과하던 라티노의 수는 11.4%로, 아시아계 유권자의 수는 1.4%에서 4.2%로 올랐다.

다만, 투표 가능 연령에 이르렀더라도 실제 투표를 하려면 유권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 미국 선거 제도의 특성상, 고학력의 젊은 히스패닉이 투표장에서 표를 행사할지는 미지수라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분석했다.

2012년 대선 때 히스패닉 밀레니얼 세대의 투표율은 48%에 그쳐 같은 세대 전

체 투표율(61.8%)을 크게 밑돌았다. 히스패닉 전 연령층 중에서도 낮았고, 흑인(55%)과 백인(47.5%) 또래 세대보다도 낮았다.

퓨리서치 센터는 히스패닉 유권자의 52%가 선거에서 그간 선거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등 3개 주에 몰려 있다면서 민주·공화 양당이 히스패닉 젊은 유권자를 상대로 구애를 펼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히스패닉이 유권자의 15~18%

를 차지해 캐스팅 보트 노릇을 할 수 있는 플로리다, 네바다, 콜로라도 주에선 이들의 선택에 따라 양당의 희비가 교차할 가능성이 커 히스패닉을 끌어들이려는 양당의 작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인 히스패닉은 멕시코 비하 발언을 무차별로 퍼부은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를 타도하고자 유권자 100만 명 등록 운동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를 차지해 캐스팅 보트 노릇을 할 수 있는 플로리다, 네바다, 콜로라도 주에선 이들의 선택에 따라 양당의 희비가 교차할 가능성이 커 히스패닉을 끌어들이려는 양당의 작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 한파’ 탈출구 중동서 찾는다

시진핑 원유 수입 3개국 순방 “사우디는 형제 국가”

‘7%대 경제성장’ 벽이 무너지면서 경기침체 위기에 처한 중국이 중동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와 이란 경제제재 해제를 양 축으로 경제 활로 찾기에 나섰다.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9%에 그쳤다는 공식 발표가 나온 19일(현지시각)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란 등 3개국 순방에 돌입했다.

시 주석은 이날 살만 빈 압둘아지즈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만나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14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경제협력을 강화했다고 아랍권 위성매체 알아라비아와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MOU에는 중국이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에 이르기까지 도로, 철로, 항구, 공항 등의 인프라를 건설하는 계획과 고에너지형 원자료를 짓는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양국은 또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원인’ 금

용 플랫폼으로 삼기로 약속해 경제적 유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시 주석은 사우디 도착 전날 현지 신문 알리아드에 기고문을 실어 사우디를 “형제 국가”라고 칭하면서 “중국과 사우디의 상호관계가 증진되기를 고대한다”며 사우디 시장에 적극 구애했다.

사우디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이란으로 이어지는 나머지 순방길에서도 시 주석은 현지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이처럼 경기침체의 위기 돌파구로 중동을 삼은 이유 중 하나는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중국이 수입한 원유 중 4분의 1이 사우디와 이란에서 수출한 것이다.

특히 최근 극한 대립 중인 사우디와 이란의 갈등이 커지면 중국의 원유 수입선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해당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물론 지역정세 안정에도 각별히 신경쓰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2020 도쿄 올림픽 앞둔 일본

사찰 상징 ‘卐’자 탐 그림으로 대체”

‘나치 상징’ 오해 우려로 제안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앞둔 일본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사찰을 상징하는 만(卐)자를 다른 표시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현지시각)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일본 지리조사연구원(GSI)은 나치의 상징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관광객을 지도에서 근자를 삭제하고 대신 3층 탐 그림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GSI는 1000 명 이상의 관광객, 대사관 관계자, 외국인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내린 결정이다. /연합뉴스

이라고 밝혔다.

고대 산스크리트어에서 나온 ‘卐’자는 불교나 힌두교의 상징으로 널리 쓰여왔다. 하지만 나치가

이를 반대 방향으로 뒤집은 갈고리상자(하켄크로이츠)를 사용한 이후 이제 서구에서는 ‘卐’자도 나치의 상징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GSI의 제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卐’자가 불교와 일본 문화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사용됐으며, 관광객들이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전문가 “북한, 공습용 드론 300대 운용”

북한은 지난 25년 넘게 무인기(드론) 개발과 성능 개량에 주력해왔으며 공습과 원거리 침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300대 가량의 드론을 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가 19일(현지시각) 밝혔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 노스’ 연구원 겸 북한군사·정보 전문 소식지 ‘KPA 저널’ 편집인인 조지프 버뮤데스는 북한이 지난 1988~1990년 사이 중국으로부터 드론을 확보한 이래 개발과 성능 개량에 주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군사 통계를 인용해 북한이 현재 300대 가량의 드론을 운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 국영 스포트니크 기고문에서 북한이 지난 1993년 말 중국의 시안(西安) ASN-104와 유사한 드론을 자체적으

로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이후에는 성능이 개량된 시안 ASN-105 모델을 토대로 ‘방현 2’라는 자체 드론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듬해(1994년)까지 북한은 시리아 군으로부터 소련제 무인정찰기 Tu-143 레이스(Reys)를 확보해 이를 핵탄두나 생물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무장 드론으로 고쳤다며 추정했다.

북한은 또 같은 해(1994년) 러시아의 쿨론과학연구소(KRI)로부터 수출용 프헬라-1T(Pchela-1T) 드론 10대를 도입했다. 북한은 특히 지난 2001년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서 프헬라-1T 기종 추가 구매 의사를 강력하게 밝혔으며 같은 시기 쿨론과학연구소는 적외선 통제 장치를 갖춰 야간 비행이 가능한 프헬라-11K 기종을 개발했다. /연합뉴스

中 여성 인권 활동가 “차이잉원 당선 환영”

“양안 여권 신장 기대”

중국의 여성 인권 활동가들은 중국 정부와는 달리 대만 야당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 후보가 총통에 당선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들은 차이잉원 당선인이 대만 뿐만 아니라 중화권 최초로 여성 국가 지도자에 선출된 데 주목하면서 이를 계기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에서 여성 인권이 신장될 것을 기대했다고 RFA는 전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차이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된 다음날인 17일 성명을 통해 “대만문제는 중국 내정의 문제라면서 대륙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에 속해있

다”며 경고장을 보냈다.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의 유명 여성 인권 활동가인 리팅팅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차이 당선인은 매우 독립적인 여성이며, 그의 총통 당선은 중국 여성들에게 크게 고무적”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여성 국가 지도자의 탄생은 특히 중화권에서 매우 드물었다”면서 “그의 당선으로 중국 남성들도 여성을 광복 상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둥(廣東)성 성도 광저우(廣州)의 여성 인권운동가 자오쓰리(趙思樂)는 “차이 당선인의 승리는 여성이기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면서 “그는 선거 유세에서 여성임을 강조한 적도 없고 여성 인권과 남녀평등을 핵심 사안으로 내세우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7층 상가건물매매

- ▶ 1층 (커피숍)
- ▶ 2층~5층 (사우나, 주택)
- ▶ 6층~7층 (설계사, 건축사)

※ 은행대비 최고 안정적 상가건물

※ 공실 없음 / 울시설 / 월세 책임보장

☆ 월수익 1,000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2,000만) (보1억5천/ 옹6억)

매가 16억

(7층상가건물, 사우나,커피숍 직영가능하므로 수익률 상승)

※주인 직매 010-6670-9800 / 010-7384-7800

신축상가 원룸 매매

전대 정문/후문 2분! (정문과후문사이)

(전대정문앞 모아아파트 후문앞 코너)

1층 (상가 2칸)

2층~3층 (원룸 6개, 투룸 2개)

4층 (주택)

(방 3개, 화장실 2개, 내부 깔끔한 화이트, 다용도실)

☆ 보 5,000만 월 500만 ☆ (옹1억2천)

매가 6억 8천만

※ 상가겸 원룸건물이므로 장래 갑어치 상승 확실히 있음

010-6834-4800 010-6832-9700